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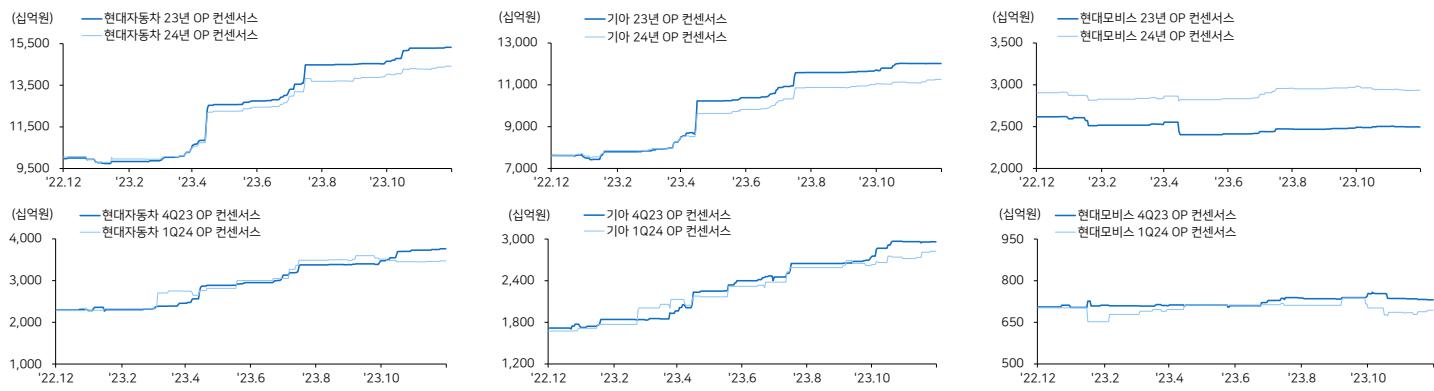
MOBILITY at a glance

2023. 12. 12 (Tu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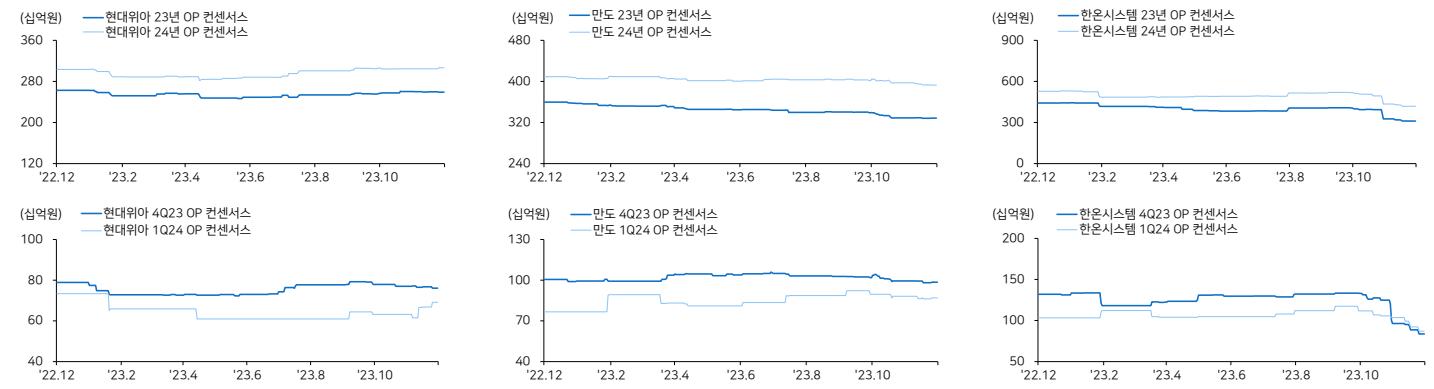


커버리지 컨센서스 추이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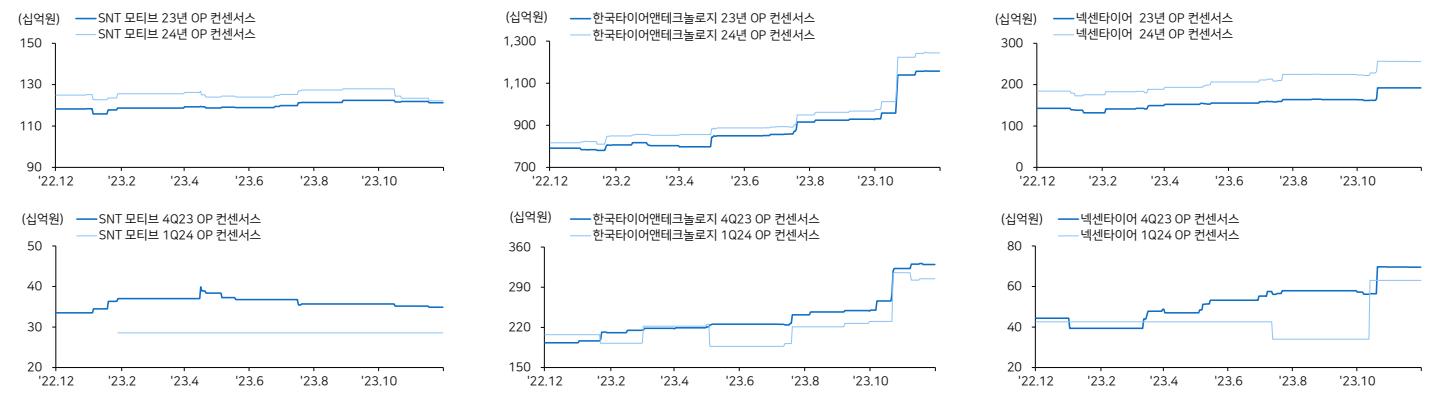
현대차 / 기아 / 현대모비스



현대위아 / 만도 / 한온시스템



SNT모티브 / 한국타이어 / 넥센타이어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국내외 주요 뉴스

Tesla Nov sales in China: Model 3 at 15,627, Model Y at 49,877 (CnEVPost)

CPCA에 따르면 테슬라의 11월 중국 내 모델Y 소매 판매량은 10월 대비 89.3% 증가했으며, 모델3는 587.5% 증가한 것으로 집계. MoM 기준 큰 폭의 증가는 상하이 공장의 생산량을 기준 수출 물량에서 중국 현지 판매로 전이한 효과

<https://han.gl/AXXVK>

China says tax breaks to stay for over 90% of new energy vehicles (Reuters)

중국 산업정보부는 새로운 기술 요건에 따라 90% 이상의 중국산 NEV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이 지속될 것이라 밝힘. 2024년부터 BEV는 1회 충전 주행거리가 최소 200km 이상, PHEV는 최소 43km 이상인 차량이 감면 대상에 해당

<https://han.gl/gf5Cm>

현대차, 전기차 투자 압박 심해져...“상황 지켜봐야” (ZDNet)

현대차가 태국 재진출 이후 태국의 자국주의 정책과 중국 공세에 초기 투자 압박을 받는 것으로 나타남. 태국 정부는 2024년부터 기존 15만바트에서 10만바트(369만원)로 보조금을砍감하였지만, 제조공장과 R&D센터 설립 등 투자 활동을 정려

<https://han.gl/ynKefV>

This major smartphone OEM wants Mercedes and Audi to use its software (Electrek)

화웨이가 차량 소프트웨어 사업의 잠재적 지분을 놓고 독일 메르세데스, 아우디와 접촉한 것으로 알려짐. 오토모티브 뉴스는 화웨이가 양사와 잠재적 소프트웨어 파트너십을 위해 소량의 자사 지분 매입을 유도 중인 것으로 보도

<https://han.gl/jWKJbv>

중국에 유럽 전기차 보호주의...“한·일 업체도 타격 우려” (이데일리)

닛케이는 프랑스가 중국 SAIC 산하 영국 브랜드인 'MG 모터'의 전기차를 정부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한국, 일본 등 제조업체 또한 아시아에서 전기차를 생산할 경우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보도

<https://han.gl/fsvaVj>

Tesla starts telling some Cybertruck orders to 'prepare for delivery' (Electrek)

테슬라는 당초 예상된 2024년보다 이른 시점, 사이버트럭 주문자에게 '배송 준비' 이메일을 발송한 것으로 알려짐. 일렉트릭에 따르면 해당 메일을 송부 받은 주문자는 대부분 한정판 '파운데이션 시리즈' 주문자인 것으로 추정됨

<https://han.gl/DxOyMk>

기아 EV9 최대 2000만원 할인...기존 차주 온라인 항의 서명 (블로터)

기아가 최근 EV9에 파격 할인 정책을 취하자 기존 EV9 오너들이 이를 항의하는 온라인 서명 운동에 돌입. 기아는 이달 초 최대 2천만원 할인에 이어, 금월 12일까지 6월과 7월 생산 차량에 각각 최대 1.4천만원, 1.3천만원 할인 제공 예정

<https://han.gl/gf5Cm>

현대차·기아 투자 '영 어리아벌, 나스닥 거래도 증지...' *1300억원 날릴 판* (더구루)

영국 어리아벌이 SPAC과 M&A 철학에 따른 자금 낭비에 이어 미국 나스닥 거래까지 증지되며 상장 폐지 수순에 임박. 성장 가능성을 보고 투자한 현대차그룹으로선 1억 유로(약 1300억원)에 달하는 투자금 전액을 손해 볼 가능성 높음

<https://han.gl/IfAyGw>

없어서 못 팔 정도?...日 도요타 “판매 제한” (한국경제)

도요타가 폭발적인 수요를 감당하지 못해 차량 20종 가운데 약 10종의 판매를 제한하고 있다고 낫케이가 11일 보도. 동 매체는 반도체 공급난으로 생산량이 줄어든 상황에서도 예상 판매를 충당하지 않아 차량 인도가 늦어진 것으로 분석

<https://han.gl/kOpzAP>

Renault to pick partner for new Twingo EV by early 2024 (Reuters)

업계에 따르면 놀노는 내년 초까지 새로운 Twingo 전기자동차를 개발할 파트너를 선정 중이며, 폭스바겐이 유력한 후보로 지목. 지탈랄 놀노는 2만 유로(약 2.1만 달리) 미만의 해당 모델 출시 목표를 밝힌 바 있음

<https://han.gl/okAhn>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원색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문서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